

대림, 베트남 정유공장 지분 참여

Petrolimex와 MOU 체결 ... 2013년 말부터 원유 1000만톤 정제

대림산업이 베트남 정유공장 건설에 참여한다.

베트남 일간투자는 대림산업이 베트남 국영기업 페트로리멕스(Petrolimex)와 중부 카잉화 반퐁 만에 건설되는 3번째 정유공장 건설에 지분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월25일 보도했다.

대림산업은 MOU 체결에 따라 일괄공정(EPC)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분을 확보한 후 주주로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페트로리멕스 외에 다른 협력기업도 모색할 것”이라며 “우선은 양사가 400만톤 정유시설 및 석유화학시설 건설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공장은 2013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가동이 본격화되면 1000만톤의 원유를 정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페트로리멕스는 베트남 최대 석유유통기업(시장 점유율 55%)으로, 대림산업의 지분 참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퐁 정유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5>